

정읍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 전개

임산부 빈혈 등 산전검사 무료 산모 영양관리·산후회복 도와 난임여성 최대 50만원 지원도

정읍시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생을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임산부에게 B형간염과 빈혈, 간기능 검사 등 무료 산전검사와 막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에드워드증후군과 다운증후군 등 기형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임신 초기부터 15주까지 엽산제를 제공하고 임신 16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임신 주수에 따른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등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산후회복,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고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정읍시는 임산부 산전검사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임산부 건강관리교실. <정읍시 제공>

시는 저소득층 영아(기초수급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제공하고 있다.

임산부의 체계적인 산전·산후관리를 통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임산부 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를 위해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과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난임 여성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에게는 한약 처방과 침구 치료(침, 뜸) 등 한방요법을 지원하고 있다.

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도 전개하고 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역

내 지정 소아과와 치과에서 총 7회에 걸쳐 구강검진과 건강교육,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와 평가 등 전액 무료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정읍시가 덜어주고 싶다"며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장흥군 인사 후유증 '골머리'

좌천인사 불만 1인시위 벌인 6급 팀장 대기발령 등 어수선

장흥군이 인사 후유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6급 팀장인 A씨는 지난 1일 좌천인사에 불만을 품고 해외 연수과정에서 벌여졌던 부적절한 행위와 청내 각종비위 등을 군수에게 폭로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군은 곧바로 A씨와 당시 총무과장이었던 B씨 등 2명을 같은 날자로 총무과로 대기발령하고 이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업무상 과오를 범했거나 품위를 손상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없이 6급팀장으로 좌천됐다"며 "다시는 이처럼 불이익 받는 인사가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군은 A씨를 포함 본청 6급 팀장급 4명을 읍·면으로 전보조치하는 한편 정중순 군수가 취임한 지난해 7월 1일 이후 무려

47명을 전보제한 기준(1년)을 무시하고 많게는 1년 내 한 부서에서 다른 곳으로 4번을 옮기는 등 파행인사를 해왔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는 단체장 고유권이 라는 점을 들어 불합리한 인사를 낱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단체장들의 인사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지방 공무원 시기진착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속승진제도로 인해 팀장급(계장)인 6급들에 대한 무보직 숫자가 날로 늘어 나면서 장흥군에서만 무려 40명이 6급밀에서 같은 직급으로 근무하는 것이 문제라며 조직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구례 왕벚나무 구멍병 감염 잎 빨리 진다

국립생태원, 곰팡이·세균에 조기 낙엽현상 확인

구례군의 왕벚나무 잎이 빨리 지는 현상이 구멍병(사진) 감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구례군 왕벚나무 가로수의 조기 낙엽 현상을 연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멍병은 아시아, 북미의 벚나무, 복숭아나무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곰팡이와 세균 등으로 인해 잎에 구멍이 생긴다.

구례군의 왕벚나무 봄꽃 축제에는 매년 약 9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왕벚나무 잎은 최근 몇 년간 너무 빨리 떨어져 9월에도 양상한 가지가 드러났다.

잎이 너무 빨리 떨어지면 이듬해 꽃과 열매를 맺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왕벚나무 잎이 빨리 지면 이듬해 가지 당 꽃눈



수와 가지 생장량은 절반가량 감소한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왕벚나무가 많고 단풍 시기가 구례군과 비슷한 제주도의 왕벚나무를 구례군과 비교 연구했다.

낙엽 비율이 90% 이상인 시기는 구례군이 제주도보다 약 한 달 빨랐다. 이는 구례군 왕벚나무가 구멍병에 감염된 탓이라고 연구진은 소개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순창군, '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

순창군이 여성친화도시로의 비전을 선포했다.

순창군은 지난 2일 향토회관에서 여성단체 회원과 읍·면 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사진>

군은 오는 2020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군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여성친화도시 순창군'이라는 비전

을 전국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순창군 여성합창단과 엔젤댄스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비전선언문 낭독, 여성친화도시 결의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순창군은 올 초부터 여성친화도시 연구 컨설팅을 추진하고 간부 교육과 직원별 대면 컨설팅을 통해 세부내용을 만드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익산 축산농가 '축산환경개선 자정 결의'

익산지역 축산 농가들이 지난 2일 대한한돈협회 익산시지부 회의실에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자정대회에는 정현을 시장과 시의원, 익산군산 축협, 한돈협회 회원농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동성 지부장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겠다는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축산악취 저감 의지를 다졌다.

이후 결의문을 채택하고 참석자들이 익산군산 축협에서부터 북부시장까지 가두 행진으로 축산악취 개선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 따라 축산 농업인들은 축산환경개선을 통한 축산악취 사전차단, 축사 주변 청결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에 노력하고 악취민원 예방을 위한 퇴·액비 저장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에도 나선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영광군, 지방세정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영광군이 지방세정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전남도가 실시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시상금 54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35개 항목을 종합평가했다.

영광군은 마을세무사와 함께가는 찾아

가는 세무 이동상담실,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시스템 구축과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

손해보험협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

가장 힘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약속, 손해보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도, 예상치 못한 아픔에도 당신이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손해보험입니다.